

IS, EU 심장 ‘벨기에’ 테러

**브뤼셀 공항과 지하철역 테러
 34명 사망 230명 이상 부상
 IS 성명서 발표하고 테러배후 주장
 EU회원국 및 EU기구 지도자들
 테러 강력규탄 공동성명 발표**



벨기에 브뤼셀 시민들이 22일(현지시간) 연쇄 폭탄테러로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고 있다. ©벨기에 VTM 방송

지난해 말 11월, 수많은 희생자를 내며 세계를 경악시켰던, 이슬람극단주의(IS)에 의한 프랑스 파리 테러 참사의 상흔이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하다. 그 당시 IS는 “이것은 단지 폭풍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경고했었다.

그런데 그 때의 충격이 이번에는 유럽연합(EU)의 심장부인 벨기에를 강타하며 다시 세상을 전율케 하고 있다.

IS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공항과 지하철역을 타겟으로 하여 22일(현지시간) 사건 당시 기준 34명의 사망자와 230여 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대테러를 감행했다. 그리고 대범하게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히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또 다른 테러자행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구 지도자들은 사건 당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하고 “EU는 오늘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을 애도한다”며 IS 테러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EU 회원국 정상들이 테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UN의 반기문 총장도 성명서를 내고 “벨기에 테러 책임자들은 즉시 범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도 벨기에 테러사건 범인들 체포를 위해 미국은 벨기에 정부에 최대한 협

조할 것을 약속했다. IS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미국도 전국 주요 공항과 철도역 등 교통 중심지에 대한 경비강화에 나섰다.

벨기에 정부는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모든 공공건물에 조기를 달았다.

한편 유럽 각국은 프랑스 파리에펠타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광장,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등 대표적인 명소에 벨기에 국기 색깔의 조명을 쏘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영인 기자

對사회 “교회의 긍정적 역할 기대”

‘2016디아코니아 코리아’ 출범예배 드리고 오는 10월 15~20일까지 엑스포도 계획해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출범예배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엑스포)’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과 나눔의 총량을 가능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단체 및 시민사회와 중앙·지방 정부 등과의 연대 협력을 통해 한국교회의 사회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국교회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사

회적·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교회봉사단·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월드디아코니아가 공동 주관하는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광장과 사랑의교회에서 열리며, 개회와 폐막식을 비롯해 청년 걷기 대회, 콘퍼런스, 영역별 세미나, 디아코니아 음악회, 영성집회 등으로 구성된다.

[관련기사 4면에 계속]



청현재이 캘리그래피는 해마다 부활절을 기해 '말씀빛발진'을 통한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5회째를 맞이한 올해도 양화진과 합정거리 등에서 캘리그래피 말씀빛발이 나무였다. [제공: 청현재이 캘리그래피]

예수님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통의 십자가를 말없이 지셨다. 목숨을 내어준 사랑을 실천하며 삼일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가시면류관과 양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 사이로 흐르던 붉은 피는 보혈이 되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기신 것이다.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3-7-21 재능캠프 재능 개발·토크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MUSICAL ETERNAL LIFE 2016
The Holy Spirit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일시: 2016년 4월 8일(금) 저녁 7시30분, 9일(토) 저녁 7시, 10일(주일) 저녁 6시30분
장소: 은혜한인교회 본당(비전센터) /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ADMIT ONE **TICKET: \$5**
 티켓 예매처: LA - 기독교서적센! Fullerton - 은혜서점, Cerritos - 복음사 Irvine - 교육전문서점

주최: 은혜한인교회 **주관:** 창조문화선교단
고문: 한기홍, 국장: 이동양, 극본/감독: 김현철
출연: 이재웅, 박선영 외 210여명이 출연합니다.

Actors:
 예수님: 이재웅, 가롯 유다: 니종은, 간음녀: 이주연, 막달라 마리아: 박선영, 마리아: 김은혜, 가브리엘: 장진우, 루시퍼: 홍정민, 미가엘: 하워드 조, 가이바: 김동철, 악녀: 송희주, 베드로: Peter Yi, 요한: 손문식, 안드레: 김현철, 야고보: 김용우, 마태: 강지민, 빌립: 이창현, 바돌로매: Andy Sohn, 살로메: 서정숙, 여자전사1 / 안무가: 이수희, 여자전사2: 서예현, 악녀2 / 안무가: 지미옥, 군병장: 송사람, 군병 1: 변병천, 군병 2: 이더루, 군병 3: 류기선, 제사장 1: 정창현, 제사장 2: 신홍래, 제사장 3: 김운영, 제사장 4: 박정길, 제사장 5: 손명환, 빌라도: 강건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신정아, 마르다: 윤혜숙, 구레네 시몬: 정유경, 시민 1: 허윤화, 시민 2: 박태정, 시민 3: 정성운, 시민 4: 유진, 시민 5: 황유라, 시민 6: 강금숙, 시민 7: 주수빈

Staff:
 조연출: 이은지, 행정팀장: 송지홍, 부 행정팀장: 최지영(회계), 김주리, 유진, 김은혜, 주수빈, 안무가: 이수희, 지미옥, 작곡/편곡: 정봉화, 음악감독: 노홍진, 황유라, 반주자: 김고은, Art Director: 황윤경, Coordinator: 고유민, 의상팀장: 소피아 최, 김영희, 의상팀원: 강선자, 유덕원, 무대 디자인 팀장: 김향숙, 무대장치 감독: 우중수, 소품팀장: 설리 황, 소품 팀원: 신인숙, 카니 박, 임상국, 무대전행: 정운경, 조연희, 무대보조: 임상국, 그래픽 디자인: 최의정, 이용욱, 분장: 박지상, 이운선, 김주연, 강민지 사진: Robert Choi, 조명감독: Joshua, 미디어 감독: 이창석 음악 Music Play: 염동진, 광고 팀장: 이미경, Child Actors: 50명 엑스트라 120명

문의: 714.446.6200
 은혜서점: 714.446.1006
 www.heartcreation.org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서부지방회 주최 “2016사모와 여교역자 블레싱” 행사가 열렸다. (뒤째줄 맨 왼쪽) 강양규 목사.

“사모와 여교역자 위로와 격려의 시간”

예성 서부지방회... ‘2016 사모와 여교역자 블레싱’ 개최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서부지방회(회장 강양규 목사)는 20일 남가주 벨엘교회(담임 오병익 목사)에서 ‘2016사모와 여교역자 블레싱’ 행사를 열고 약 50여 명의 사모와 여교역자들을 초청,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사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 사모와 여교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렸다.

이 행사는 지방회 뿐만 아니라, 각 개교회의 협조, 특히 남가주 벨엘교회의 전폭적인 동역으로 참석한 모든 목회자 사모 및 여교역자

들에게 잇 수 없는 회복과 감동의 시간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었으며, 제1부는 예배, 2부는 양홍규 목사와 함께 하는 율동과 찬양 페스티벌, 그리고 제3부는 만찬과 레크레이션 및 선물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오병익 목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빌립보서4:4) 제목의 설교를 통해 “빌립보서는 4장 밖에 안되는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단어가 무려 17회나 나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빌립보서를 ‘환희의 복음’이라

고도 말한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사모님들과 여교역자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위로가 넘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최선문 사모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교회 사역에 시달려 지쳐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큰 기쁨과 위로를 받고 돌아간다. 이런 행사가 매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며 주최 측의 배려와 정성에 감사했다.

[자료제공: 강양규 목사]



기독교청년회 고국 방문 행사를 준비 중인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글로벌선진학교가 18일 기자회견을 했다.

“고국의 문화와 영성 함께 배워요”

성시화-글로벌선진학교...기독교청년회 고국 방문 행사 준비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글로벌선진학교가 기독교청년회 고국 방문 행사를 연다. 매년 2세 청소년들에게 신앙과 함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고국 방문 행사를 실시해온 성시화는 올해 글로벌선진학교와 협력해 더 나은 콘텐츠를 마련하고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고국 방문은 크게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대다수 고국 방문 프로그램의 필수 코스라 할 수 있는 관광이 그 첫 번째다. 이번에는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남산, 국회, 독립기념관, 문경새재, MBC 방송국 견학 등의 일정이 준비돼 있다.

두 번째는 글로벌선진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영성캠프다. 성시화와 글로벌선진학교는 이 캠프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 한국에서 소위 “뜨고 있는” 기독교사인 글로벌선진학교가 제공하는 영성 훈련 프로그램은 한인 2세들이 한국의 신앙과 영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찬양에 배와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의 간증, 영성집회 등이 준비돼 있다.

마지막은 친선캠프다. 이 시간은 한국어와 한국 예절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지만 사실 글로벌선진학교 재학생들과 한인 2세 학생들이 섞이고 섞임을 받으면서 서로의 장벽을 허무는 시간이다. 한국 학생들은 미국을 배우고, 미 한인 학생들은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연합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11박 12일 동안 진행되며 참석자들이 미주 각 지역에서 항공편으로 12일 인천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글로벌선진학교가 책임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비는 항공료를 제외하고 800달러다. 주최 측은 약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는 전화(717-830-9356)하거나 웹사이트(www.gemgem.org)를 참조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복음선교연합 남부지역회 시작

기독교복음선교연합총회(CGMA, General Assembly of Christian Gospel Mission Alliance; 총회장 김인철 목사)가 남부지역회를 시작하는 예배를 드렸다.

지난 2015년 8월 LA에서 창립된 이 교단은 현재 회원을 모집하며 지역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지역회는 장로교로 보면 노회에 해당한다.

남부지역회는 21일 오후 1시 엘링 장로교회에서 첫 지역회 및 예배를 드렸다.

지역회에서는 규칙을 통과시키고



기독교복음선교연합총회 목사안수식에서 안수위원들이 김진규 전도사에게 안수하고 있다.

임원을 선출했으며 예배에서는 강성수 부총회장이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지역회 직후에는 김진규 전도사

가 목사로 안수받았다. 안수식에서는 총회장 김인철 목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세리토스선교교회로 명칭변경”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가 1, 2, 3세대가 함께 지역사회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커뮤니티 교회로 섬기기 위해 “세리토스 선교교회(Cerritos Mission Church; CMC)”로 명칭을 변경했다. 오랫동안 사용하였던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에서 “동양”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동양”(Oriental)이라는 단어가 미국 실정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주로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문화 섬기기를 원하는 이 교회의 비전과 대치된다. 따라서 지난 2월 28일에 있었던 임시공동의회 출석성도의 99.8%의 찬성으로 공식 교회 명을 변경하게 됐다.

앞으로 세리토스선교교회는 3년전에 부임한 1.5세 담임목사인 방상용 목사를 중심으로 1세와 2세를 연결하고 교회와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어지고 무너진 심령들을 복

음으로 다시 살리고 회복하며 세우는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소원하고 있다.

CMC는 복음을 통해 다음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온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다민족 커뮤니티교회로 섬기기 위한 마음가짐도 새롭게 했다.

▲주소: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문의: 562 402 2919
▲웹사이트:www.cmchome.org

미주 성경적 상담 자기대면 세미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성경적 상담사로 헌신케하는 과정의 세미나가 열린다.

- 일시: 3월 30일(수)-4월 1일(금)
- 장소: 빛내리교회(1201 S. Beach Blvd., La Habra, CA 90631)
- 문의: 949-275-5083 (이명희 목사)
- 회비: 80불(교재 및 점심 포함)
- 강사: 이요나 목사 (홀리라이프 치유상담학교 학교장)
- 주최: 옐렌카운티 교회협의회
- 주관: 홀리라이프 & Eagle High Mission
- 홈페이지: www.holylife.kr

→개척장로회대학교 총문화 목회자 세미나가 오는 4월 4일 개최예정에서 보다 알찬 내용을 준비하고자 그 개최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

SAS 인가컨설팅 비영리단체, 선교회, 연구소, 종교특례 대학 및 일반대학 설립인가 미 전역 종합서비스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축 부 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1부
오전 7:40
본당

2부
오전 9:30
본당

3부 (열린예배)
오전 11:45
본당

4부
(조용기 목사 영성예배)
오후 1:30
권사회실

새벽예배 월 - 토 오전 5:30 /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 본당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7:30 / 본당

영아부 예배 (0-2세) 주일 오전 9:30, 11:30 / 본당 영아부실

유치부 예배 (3-5세) 주일 오전 09:30, 11:30 / 신 교육관 유치부실

유년부 예배 (1-5학년) 주일 오전 09:30, 11:30 / 구 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 / 구 교육관 (AWANA)

WG 영어중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등부실

JVT 한어중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등부실

MIG 한어청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3부 예배) / 본당

EM 예배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EM CAM(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토요일 19:00

실버드림대학 목요일 오전 9:00 / 구, 신 교육관

토요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09:30 / 구 교육관

순복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나성순복음교회
LAFGC LA FULL GOSPEL CHURCH

담임목사 : 진유철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주소 :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Tel 323 - 913 - 4499
Fax 323 - 913 - 4494
www.lafgc.com
lafgcusa@yahoo.com



2015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어워드'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가 20일 창립 6주년 예배를 드렸다.

오픈뱅크 "10%사회환원" 실천행진 이어져

39개 비영리 단체 선정 총 36만 달러 지원...총 누적지원금은 약 150만 달러

오픈뱅크와 오픈청기재단이 벌이고 있는 "수익의 10% 사회환원" 실천행진은 올해도 어김없이 계속됐다. 재단 측은 특별히 올해는 단체운영의 투명성과 정직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심사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단은 17일 오후 6시 오픈뱅크 웨스턴 지점에서 '2015 오픈청지기프로그램 어워드' 행사를 열고 소망소사이어티 등 선정된 비영리 39개 단체에게 각각 지원금 수여식을 가졌다. 올해로 벌써 5회째다. 이로써 오픈청지기재단의 쉐어커뮤니티 총 누적지원금은 약 150만 달러에 이르게 됐다.

이날 오픈뱅크 성제환 부사장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민 김 행장의 인사말,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대표의 기도, 단체 선정 심사위

원단 소개, 오픈뱅크 브라이언 최 이사장 축사, 그리고 김옥희 청지기재단 이사장의 인사말과 각 선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 수여증 수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민 김 오픈뱅크 행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익의 "10%사회환원"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사진들에게 감사한다"며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봉사 단체들에게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김옥희 오픈청지기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지원금 수혜 단체들은 오픈뱅크의 명예지점이나 다름없다. 올해도 39개의 지점이 추가됐다"며 "재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이를 통해 커뮤니티 속에 더욱 더 우뚝 서는 오픈뱅크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더 많은 쉐어커뮤니티 기여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단이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청지기재단(Open Stewardship Foundation)은 커뮤니티 봉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오픈뱅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오픈뱅크는 매년 수익의 10%를 커뮤니티에 환원한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오픈청지기재단을 통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 재단은 설립 후 지속적으로 오픈청지기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을 통하여 커뮤니티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을 발굴하고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문의: 213-593-4885 이영인 기자

성경적 "참 좋은 교회" 되자

LA비전교회 창립6주년 기념예배 드려

LA비전교회 창립 6주년 예배가 3월 20일 분당에서 있었다.

김대준 담임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성도들이 자원하여 만든 전도지를 보면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면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무리이다. 그러므로 예배와 교육, 친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공동체"라고 말했다.

김대준 목사는 교회는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배우고(디다케), 나누며(코이노이아), 각각 흠어져

(디아스포라), 복음을 전하며(케리그마), 세상을 섬기는(디아코니아)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또 "LA비전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참 좋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고 권면했다.

한편 LA비전교회는 창립 6주년을 맞아 김권수 목사를 강사로 성경 통독세미나와 간증집회를 열고 전 교인이 전도하는 교회,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짐했다.

이인규 기자

27일 부활절 연합예배

- LA동부지역교회연합회(아름다운교회, 오전 5시 30분)
-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연합회(은혜와평강교회, 오전 5시 30분)
- 밴주라교회연합회(밴주라감리교회, 오전 6시)
- 애틀롬밸리지역 A.V. 지역(랭케스터사랑의교회, 오전 6시)
- 인랜드한인교회연합회(가스윌연합교회, 오전 5시 30분)
- 빅토밸리한인목사회(새생명한인교회, 오전 5시 30분)
- 사우스베이목사회(대흥장로교회, 오전 5시 30분)
- 중부지역교회협의회(감사한인교회, 오전 5시 30분)
-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한인목사회, OC기독교평신도협의회(얼바인온누리교회, 오전 5시 30분)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아가페선교회, 오전 5시 30분)
- LA기독교교회협의회(서울운동장, 오전 5시 30분)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국,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남가주미스바연합기도회

제3회남가주미스바연합기도회가 19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동안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이하GMU) 채플실에서 열렸다.

GMU, 웨퍼드신대, 베데스다 신학교, 미주장신, 아주사, 풀러신학교, 골든게이트신학교등의 신학교와 CMF, JAMA, 원하트미니스트리가 연합한 기도 모임이었다.

이 기도회는 중보를 통한 연합과 기도외에는 남가주에 담긴 신앙적 어려움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기도회도 교회와 각 단체들이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다시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다.

찬양으로 시작된 기도회는 강순영 목사(JAMA)의 기도를 시작으로 김현완 학장(GMU), 김익현 목

사(마하나임침례교회), 김신호 교수(베데스다대) 등의 기도를 돕는 설교,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 또한 재정과 삶을 통해 헌신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종교개혁 5백주년 기념 히브리식 사고 및 체현 제 1차 테필린(Tefillin) 세미나

한국에서 종교개혁 5백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미래대안을 형성하고 있는 히브리식 사고 및 체현을 통해 성경 원전을 해석하는세미나가 미주 최초로 열립니다.

강사
 강신권 박사 (Dr. Paul Kang)
 토브성경원전 연구소 소장

1. 히브리식 사고(3통 사고)로 성경 원전해석
2. 히브리식 체현(5특 체현)으로 성경 원전해석
3. 미주 최초로 테필린 세미나를 통해 수천년간 내려온 유대인 교육에 숨겨진 비밀을 배움
4. 무료 책자 증정

•날 짜 : 2016년 3월 28일(월) 대상 :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 선교사
 •시 간 : 오전 9:30~오후 2:30
 •장 소 : 기독일보사
 •인 원 : 선착순 20명(비용 무료)
 •주 소 : 621 S. Virgil Ave., 260, LA, CA 90005
 •연락처 : T(213)739-0403, (213)434-1170

주관 : 토브 성경 원전 연구소(Tov Bible Institute) 협찬 : 비즈포스트(Bizpost)



제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가 주 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에서 14일부~16일까지 열렸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제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개최·선교적 교회의 이론적 지식과 실제모형 경험해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주 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에서 14일~16일까지 제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가 열렸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캐나다 토론토 및 시애틀, LA, 시카고, 오스틴, 뉴저지 등 미전역에서 65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강의와 현장견학, 패널토의 등을 통해 주 예수교회의 선교사역을 통한 선교적 교회의 이론적 지식과 실제모형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 환영만찬 후 시작된 강의에서 영광섭 교수(센트럴침례신학대학원)는 “선교적 교회논의와 실천의 흐름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미주 한인 이민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 보냄

받은 공동체임을 자각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각 성도들이 교회밖 세상에서 복음의 메시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상의 신학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날 이어진 한국일 교수(장로회신학대학원)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통합적 관점”과 “선교적 목회 리더십”주제의 강의를, 셋째 날에는 노승환 장로와 박태은 장로가 각각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사명”, “선교적 교회의 삶의 실천”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한편 배현찬 목사(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 원장)는 “성서적 전통, 공동체 이해, 문화적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한인 이민교회가 속한 지역의 독특한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적인 일체를 가지고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리치몬드 지역의 대표적인 노숙자 사역기관인 CARITAS 본부와 워싱턴 DC 소재 세이비어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여러 사회 선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신앙공동체 사역의 모습도 체험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캔사스 센트럴침례신학대학원에서 “선교적 교회”를 전공하는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 15명이 필수 이수과정으로 참여해 학문적 이론학습 및 실제 목회현장을 경험했다.

제4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는 미국장로교회한국교회전국총회(NCKPC) 국내선교위원회와 협력하여 내년에도 고난주간 전 주에 열릴 예정이다.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3. 가여운 목수 요셉

목수 요셉, 오 가여운 남자여. 동침하지 않은 아내의 임신소식을 듣고도 그를 보호해야 한 남자. 죽음의 위협은 아들의 출생 후 몇 년 그를 늘 따라다녔다. 유월절을 마치고 어린 예수가 성전에 홀로 남은 날 자신을 따라오지 않은 것을 책망하자, 아버지 집에 내가 있지 어디 있을줄 알았느냐는 이 세상 말 같지 않은 대답을 들어야 했던 서글픈 아버지.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이게 전부라서 죽은 날은 커녕 죽은 해마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신의 아들을 품어야 했기에 인간 아버지의 흔적은 일부러라도 지워야 했을까. 예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마리아가 과부였으니 그는 분명 일찍 세상을 떠날 것이겠지만. 나무를 재단하는 그의 재주를 물려받은 아들 예수가 나무에 달려 피를 흘려야 했으니 이는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한 또래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그럴듯한 설명과 함께.

그의 육신의 자녀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종종 예수는 가족을 심하게 무시하는 듣기에 민망한 가르침을 남기곤 했다. 사랑하라는 이웃 중 가장 큰 것이 가족일텐데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요셉의 자녀들이 형이자 오빠였던 예수를 신의 아들로 깨달은 것은 십자가를 지난 뒤어야 했다.

가여운 목수 요셉은 그리하여 구원받았을까. 제발 그러하길. 그가 신이 부여한 역할을 무리없이 수행하였기에 주어진 것인지, 아내와 가족을 보호한 의로움 때문인지, 이스라엘의 율법을 성실히 지켰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들 예수를 신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4. 가을 하늘

구름긴 하늘이 좋다. 위를 한번 쳐다보라고 신이 건네는 인사. 이 불을 추스리고 아내를 가까이 안게 만드는 가을새벽의 냉기가 좋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옆에 누울 짝을 주심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랑하라 마음껏. 가을하늘 위로 지평선 저편까지 구름이 손짓한다. <계속>



한국교회봉사단 총회 후 기념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2016디아코니아 코리아’ 출범

[관련기사 1면으로부터 계속] 사전대회로는 이날 출범식 이후 5월과 7월 디아코니아 음악회가, 9월 각 지역대회 겸 자원봉사대발대식이 열린다.

이 행사는 앞서 지난 2005년과 2010년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열렸었다.

출범식에 대해 대표대회장 김삼환 목사는 “한국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섬겨 왔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원한다”고 전했다.

상임대회장이자 조직위원장인 오정현 목사는 “이번 대회는 한국교회의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실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

라며 “민족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사회와 시대, 통일과 세계선교를 향한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부 예배에서는 오정현 목사 인도로 이종복 감독(인천교회봉사단 대표회장, 인천은혜교회)의 대표기도와 구자우 목사(한장총총무, 예장 고신 사무총장)의 성경봉독 후 김장환 목사(극동방

송 이사장)와 김삼환 목사가 ‘참된 봉사(창 41:40-43)’와 ‘하나님의 사랑(요일 4:9-11)’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이어서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 대회를 위하여’ 유만석 목사(부대회장, 수원명성교회),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 사역을 위하여’ 한태수 목사(부대회장, 은평성결교회), ‘국내외 재단민,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유충국 목사(예장 대신 부총회장, 제자교회), ‘복음적 평화통일과 북한 동포를 위하여’ 소강석 목사(부대회

장, 용인새에덴교회)가 각각 기도했으며, 손인웅 목사(상임대회장, 덕수교회 원로)가 축도했다.

2부 출범식에서는 권태진 목사(집행위원장, 군포제일교회)의 ‘디아코니아의 해’ 선포, 오정현 목사의 환영사, 정성진 목사(부대회장)의 대회 소개, 홍보대사 뮤지컬 배우 남경주와 아나운서 최윤영 소개,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축사와 유동선 기성 총회장의 마침기도 등이 진행됐다.

이대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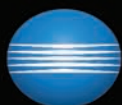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삼, 박기호, 방지석, 김준연, 고승호,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사명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 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opm Duplex
Dual Scan ADF 80 o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요한계시록 21:1-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요한계시록 21:1-8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 하늘의 시민권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이 세상의 기대와 꿈을 포기하지 못한 채, 한 해를 아쉬움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기 인생의 기대와 꿈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연말이 되어도 그 기대가 끝내 실현되지 못하고 어긋나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을 비판하며 스스로 인생을 실패와 불행으로 만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로 얻어지는 결과는 헛되고 허무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피

조물이라는 것은 다시금 지으심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

본문 1절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왜 처음의 하늘과 땅은 없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7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찌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는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도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했습니다.

이것은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진 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일 부러 안 믿고 다른 사람들도 못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당시 기롱(欺弄 속이고 희롱하는 것)하는 자들, 거짓 선동하는 자들을 쓸어 없애버리기 위해 노아 때 홍수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9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

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하십니다.

3. 하나님으로 온전히 즐거워 할 가장 사랑받는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원 얻어 하늘나라에 가 있던 영들,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을 모두 데리고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고 천국에 있던 영들은 각기 흩어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를 입어 영적체질로 되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천사들이 와서 붙들고 예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러한 휴거 과정에서 이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목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갖추기 위해 신앙생활하시기 바라며,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 동료들을 이 생명 길로 전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주인공으로 자격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아 누리게 될 것이며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며, 육신이 원하는 본능적 욕구로 짐승같이 살게 되면서 짓게 되는 죄악들입니다. 이러한 죄악 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 모두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영광스러운 아들, 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축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한국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7:15 / 본당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 본당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 본당
 주일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 본당
 수요일 예배: 저녁 7:30 / 본당
 토요일 해시바 새벽 기도회: 새벽 6:00 / 본당
 새벽 기도회: 화-금 새벽 5:30 / 본당

담임: 김한요 목사
Rev. Bryan H. Kim, Sr.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수양관 (949)943-9697
 www.bkc.org • email: bethel@bkc.org

예수 부활하시겠네

나성 한미 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유초등부/유치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분(월~토)

전병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444-0058

• 교육칼럼(3)

십대자녀 바로 세우기(3)



제이슨 송 교장
세언약초중고등학교

년들이 저지른 살인이 168% 증가했다. FBI는 매년 약 2만 3천명이 미국내에서 살해당하는데, 살인사건 범죄자 중 25%가 21세 이하라고 한다. 지난 10~15년간 청소년들이 범한 살인율이 약간 줄어들긴했으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 및 우범지역에선 아직도 청소년들의 폭행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청소년들은 또 폭력물을 보고 모방하기도 한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컬럼바인 사건의 가해자들은 리오나르도 카프리오가 출연한 영화의 한 장면을 모방하며 사건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뉴스를 통해 전해질 때, 그것을 보고 또 모방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청소년들이 접하는 폭력물을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게임 속의 폭력이다. 특히 남학생들은 폭력적인 게임을 즐기며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폭력에 무뎌져가고 있다. 그 결과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에 큰 신경을 쓰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보고 듣는 것이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에 폭력게임이 청소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주 무책임한 말이다.

폭력에 노출되어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는 물론, 더 좋은 길, 더 좋은 방법,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내용과 활동을 소개하고 즐기도록 해야한다. 그렇기에 좋은 부모와 좋은 교사, 좋은 멘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도와 준비, 교육, 그리고 훈련이 필요할 것이 분명하다.

첨단기술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보다 수백 배에 달하는 정보와 "자극"을 받게 한다. 예를 들어, 폭력을 담은 내용이 미디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있다. 미디어 매체들은 특히 CGI 즉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여 마치 현실과도 같은 폭력내용을 제공한다. 통계에 따르면 약 36%의 청소년들이 적어도 한달에 한 두번 매우 폭력적인 영화나 뮤직비디오, 드라마 또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갤럽 폴에 따르면 78%의 청소년들은 폭력물에 대해 별 거부감이 없다고 한다.

폭력은 영상물만을 통해 접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의 청소년들은 가정 안에서도 폭력을 직접 보고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정보다 공립학교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많이 접한다(모든 학생의 90%가 공립학교에 다닌다). 또 소수의 청소년들은 폭력 가해자이기도 하다. 지난 30년간 미국내 살인 통계를 보면 십대가 범한 살인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간 청소년들이 저지른 살인이 168% 증가했다.

보혈은 보배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을 공급하는 능력이다. 병은 생명이 약해질 때 생긴다. 육체의 어느 부분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 부분에 약동하는 생명이 약해진 까닭이다. 그 때 병이 들어와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은 풍성한 생명을 공급함으로 병마를 물리친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혈을 통해 풍성한 생명이 공급되면 병마는 떠나게 된다. 우리는 아플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간구해야 한다. 예수님은 보혈의 능력을 통해 병의 힘을 약화시키고 생명의 능력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예수님의 보혈은 고난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며 축복이며 영광임을 알게 된다. 예수님은 고난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고난의 가치를 아셨고, 고난에 소중한 가치를 부여해주셨다.

고통에는 뜻이 있으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다(요 9:1-3).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자처하며,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길 원했다(빌 3:10).

찰스 스펠전은 "교회라는 배는 피의 바다를 헤치고 전진합니다. 붉은 피로 물든 십자가를 돛대에 달고 진홍색 물보라를 만들며 밤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펄박, 고통, 죽음의 폭풍에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거룩한 고난이 아말로 가장 확실한 전진을 가능케 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의지하자. 보혈을 의지해서 전진하자.

고난 주간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풍성하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과거나 현재,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십대 청소년들이 접하는 것은 (1) 신체 및 심리적 변화 및 성장, (2) 논리적 사고 발달, (3) 윤리와 가치에 대한 질문, (4) 성과 결혼에 관한 생각, 그리고 (5) 장래에 대한 질문과 걱정이다. 그리고, 종전과 달리 요즘 청소년들이 풀어야 할 문제가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첨단기술을 통해 접하는 내용(콘텐츠)의 "문제"이며, 기사를 통해 폭력적인 내용을 접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살펴보겠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첨단기술과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기들을 사용하며 생활한다. 그들은 케이블 TV, 위성 TV, 인터넷, 셀폰, 랩탑, 컴퓨터 같은 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룬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접하고 소비한다. 그리하여 모르는 소식이 없고, 부모보다 훨씬 앞서 가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한결음 더 나아가 소셜네트워, 그러니까 사회와 인간관계의 기반(foundation)으로 여긴다. 그래서 컴퓨터나 셀폰으로 네트워크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텍스트,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사용하며, 더 나아가 상당한 양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한다.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없는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기에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하며, 셀폰을 자신의 한 "부분"으로 여길 정도다. 앞으로 수년내에 wearable technology와 virtual technology가 청소년들을 디지털 세계로 한층 더 끌어들이는 것이기에 많은 기

보혈은 보배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게 된다.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는 까닭은 예수님의 보혈은 보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 주셨다(요 19:34).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마 1:21).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주셔야 한다. 그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히 9:22).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은총의 도구로 어린양의 보혈을 선택하셨다. 왜 하나님은 피를 용서의 도구로 선택하셨을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 17:11).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다(요일 1:7).

예수님의 피가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고,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없이는 능력이다(히 10:11-18).

예수님의 보혈은 재앙을 막아주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다.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재앙이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안전했다(출 12:7).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셨다(출 12:23).

바누엘교회

바누엘교회 중고등부와 대학부 교역자를 모십니다

■ 사역부서
중고등부 1명, 대학부 1명 (각각 1분씩)

■ 자격
정규 신학교 졸업생이거나 졸업하신 분
담당 부서에 경험이 있는 분
학생들을 좋아하시는 분
(가급적, 중고등부 사역자는 25-30세 정도의 미혼, 대학부는 30세 전후의 기혼자)

■ 연락처
바누엘교회 담임목사 이동배
T(818)823-5464, (213)353-4688

바누엘교회

190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57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전 도시 총력전도 & 다민족 연합기도회 AZUSA NOW

LOS ANGELES MEMORIAL COLISEUM

2016.4.9 SAT 7-9AM
LA 메모리얼 콜로세움

역사적 Azusa Now 전 도시 총력전도 & 다민족 연합기도회에 초청합니다

↘ 일시: 2016년 4월 9일 토요일

“한인들의 연합된 기도가 미국의 새벽을 깨우며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7:00 am – 9:00 am (한인 인도 기도시간)

4:00 am – 10:00 pm (도시 총력 복음전도 초청 집회)

↘ 장소: LA 메모리얼 콜로세움 (USC 경기장)

3911 S.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37

↘ 주최: The Call과 미국 주류 선교단체 연합 (대표 루 잉글 목사)

↘ 한인 주관: Azusa Now 한인 준비위원회(박희민 목사, 신승훈 목사, 진유철 목사와 공동대표들),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각 교단, 각 지역교협 및 목사회, 기독단체들, 한인교회들

↘ 주관언론사 : 크리스천헤럴드 (CHTV18.88/www.chtv1888.org)

“한인교회 총동원 부활절 도시 전도 실천의 날로
3월 27일 부활절 오후 2시부터 1,300개 남가주 한인교회마다...”

남가주에 있는 모든 도시마다 총력전도가 일어나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를 위해 무료 부활주일 전도세트(Easter Bag)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참을 희망하시는 교회들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세요!

문의: **Azusa Now** 한인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이성우 목사)
213-384-5232/213-598-5323, laholycity@yahoo.com

REGISTER AT **AZUSANOW2016.COM**



기독교 지도자 발기인대회가 열리고 있다.



촛불기도회로 진행된 서울역 통일광장기도회 모습. ©기도연합 제공

“기독교인들 하나돼 동성애·이슬람 저지해야”

‘기독교 지도자 발기인대회’서 결의문 채택...4월 3일 ‘1천만 서명주일’로 선포

“동성애·이슬람·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기독교 지도자 발기인대회”가 21일 아침 디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전용태 장로(전 대구지검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등이 초대한 이 대회 참석자들은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동성애 반대운동 전개 △이슬람 확산과 수쿠크법, 할랄단지 철폐 △차별금지법 폐기 등을 위

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기총·한교연·한기지협·한장총·한평협·한여협 등 대표적 연합기관들과 함께 4월 3일 ‘1천만 명 서명주일’을 선포하기로 했다.

전용태 장로는 “한국교회가 침묵하는 사이에, 동성애·이슬람·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거나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입법 시도되고 있다. 사람에게 의한 독재는 독재자가 죽으면 끝이지만, 법에 의

한 독재는 영원하다”며 “계속 방치하면 점점 더 교회는 불법집단이 되고 성경은 불온문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참석한 한 전직 고위 공무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동성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종교인 이슬람 등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막지 못하면 사회가 급속도로 음란해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고 우려했다. 류재광 기자

“선교하는 백성되게 하소서”

고난 주간...북한 동포 구원 위한 촛불기도회 개최

매주 월요일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서울역 통일광장기도회가, 2016년 고난주간을 맞아 21일 오후 특별 촛불기도회로 진행됐다.

이날 촛불기도회에서는 서경석 사무총장(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의 개회사, 탈북민 김영남 전도사와 정베드로 목사(북한정의연대)의 기도, 한국기독교학술원장 이종윤 목사(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상임대표)의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롬 5:3-5)’ 설교 후 기도가 이어졌다.

기도회에서는 북한 동포들이 더 이상 김일성·김정일 동상과 초상화 앞에 절하지 않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뜨겁게 간구했

다. 기도회 측은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북한 땅 방방곡곡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고, 북한 동포들도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선교하는 백성이 될 때까지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는 주기철 목사를 다룬 영화 <일사각오>를 연출한 권혁만 감독이 인사하기도 했다.

통일광장기도회는 지난 2011년 10월 31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 동포들의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 열리고 있다. 이날 기도회는 통일광장기도연합(코디네이터 이용희 대표)과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이 공동 주관했으며, 부산역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촛불기도회가 진행됐다. 이대웅 기자



교단장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부활절에 한기총-한교연 통합 촉구 결의문 발표”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연합에 대한 의지 표명 차원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올해 부활절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통합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이하 교단장회의)는 22일 아침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광림교회(담임 김정석 목사)에서 열릴 부활절 연합예배 도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201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대표대회장인 전용태 감독회장(기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는 명실공히 한국교회가 하나돼 드리는 예배”라며 “이런 연합이 부활절 후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전 감독회장은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는 연합기관이 아닌 교단과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라며 “하지

만 연합기관들 역시 이런 취지에 공감해 소속 교단 중심으로 예배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기총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교단장 자격으로 예배 순서(인도)를 맡지만, 교단장이 아닌 한교연 조일래 대표회장과 NCKK 김영주 총무는 아직 참석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게 전 감독회장의 설명이다.

김진영 기자

“황형택 목사에 대한 무리한 재판 논란”

강북제일교회 사태 해결에도 도움 안 돼



박노훈 목사 신촌성결교회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이 최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에 대해 전도사직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 총회재판국은 강북제일교회 김도집사의 1인이 황형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사건번호 제99-23호)에 대해 3월 11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은 판결 이유로 △교인들의 교회 출입과 예배를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교회 헌금을 집행했다는 것 등을 들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자신들의 심판 사항도 아닌 재판을 기소위원회

의 기소 제기도 없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황형택 목사에게 교단 헌법이 정한 기소장 송달(권징 제67조)도 하지 않았고,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하기 위해 필요한 노회 기소명령 이행 절차(헌법 시행규칙 제67조 2항)도 지키지 않았다. 이미 국가 법원은 황형택 목사의 목사 안수와 강북제일교회 담임 및 대표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총회재판국의 행보는 제 100회 총회를 맞아 화해를 강조하고 있는 교단 분위기와도 배치된다. 이는 교단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강북제일교회 사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황 목사 측은 총회에 이 같은 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 그리고 대안 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추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남가주 벨엘 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후 11: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주소 및 전화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오병의 담임목사

추부활

- 1) 세계인과 미국인과 한국인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교회
- 2)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교회
- 3) 2세를 100% 세계인, 100% 미국인, 100% 한국인으로 키우는 교회

세미한교회는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사랑과 믿음의 예배공동체입니다.

세미한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2:00
- 금요성령집회 금요일 오후 7:00
-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최병락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615 W Belt Line Rd, Carrollton TX 75006
Tel) 972-446-0178 semihan.org



과거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및 교계 지도자들이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방문 모습.

“위안부 문제, 회복의 정의 구현해야”

미주장신 기독교 인문학 포럼에서 민중기 목사 발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역사적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미주장신교회신학대학교가 이민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기독교 인문학 목요포럼을 3월 17일 “기독교 사회 정의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란 주제로 열었다.

이 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 담임, 기독교윤리학 Ph.D.)는 이 문제를 ‘집단적인 죄’로 규정하는 한편, 사회 정의와 사회적 영성의 관점에서 하나씩 풀어갔다.

민목사는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외교적 타결을 이루고 이에 대한 사죄와 반성 및 유관단체 설립시 일괄지원 등을 약속받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일본의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는 아직도 심각한 역사적 상처가 아물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며 본국과 LA 이민사회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도 국가적인 보상과 사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후대 교육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집단적 죄의 문제는 집단적 회심으로 열매 맺어야

먼저 그는 위안부 문제를 ‘죄’의 문제로 해석했다. “기독교가 개인의 회심과 신앙 성숙을 강조하면서 점차 사회 구조 속에 있는 집단적 죄에 대해서는 인식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면서, 폴 리피어의 설명을 빌려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집단으로, 또 제도로, 그리고 국가의 결정에 의한 국가의 죄로 공식화된다”고 말했다. 민목사는 “해방신학자들은 개인적 회심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집단적인 악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집단적인 죄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회개는 개인의 회심이라는 기본적 출발점에서 시작되어 반드시 집단적인 차원에서 열매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차원에서의 공식적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

◆ 위안부 사건에 대한 정의 구현은 어떻게?

민목사는 위안부 사건을 두고 어떻게 정의가 구현되어야 하는지도 제안했다. 그는 먼저 정의의 관점으로 응보정의, 분배정의, 회복정의를 꼽았다. 응보정의는 악을 저지른 가해자를 사법적 차원에서 징벌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도 각종 범죄에 대해 징벌하게끔 한다. 분배정의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복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목사는 “단순히 처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관점에서 살생을 추구하는 정의”라고 부연했다. 회복정의는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까지도 총체적으로 회복시키는 정의의 개념이다.

위안부 문제에서도 이 3가지 정의가 모두 구현되어야 한다. 응보정의 차원에서는 개인이 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들이 보상해야 한다. 이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은 피해자를 향한 위로와 치유의 의도 아래 진행되어 분배정의도 이뤄져야 한다. 회복정의 차원에서는 평화와 회복과 제국주의 청산이라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민목사는 “작금의 일본 정부는 과거의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삭제하고 기만하고 왜곡하고 전가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를 원하며 이를 망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일본의 보수주의적, 군국주의적 정서는 주변 국가와의 화해와 평화에 악영향을 준다. 이는 과거사의 반성에 대한 책임이



민중기 목사

사실에 대한 인정과 회심,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원만한 화해에까지 이르러야 함을 가르쳐 준다”고 했다.

◆ 거대한 악의 배후에는 있는 정사와 권세

민목사는 이 문제를 정의의 관점 외에 영적 관점에서도 조명했다. 그는 “성경에서 국가를 나타내는 두 가지 상징은 하나님의 사자인 ‘관원’(롬 13장)과 적그리스도인 ‘짐승’(예13장) 등 이중적이다. 성경은 영적 권세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사회의 여러 영역,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신약성경의 귀신론(Demonology), 특히 바울의 귀신론을 연구하는 것은 국가라는 실체가 종종 악한 병리현상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민목사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위안부 문제 호도 및 은폐 시도를 영적 존재의 전술로 해석했다. 영적 존재는 미혹을 전술로 사용해 자신을 의의 천사로 가장하면서(고후11:13-15) 자신의 추문을 숨기기 위해 제도의 영성을 주도해 낸다.

당시 일본제국은 자신들의 범죄를 대동아 공영권을 위한 ‘정신대’(挺身隊), 즉 어떠한 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헌신한 무리로 성노예를 미화시킨다든가, ‘위안부’(慰安婦), 즉 끈고한 영혼에게 위안을 제공하는 여성으로 왜곡했다. 민목사는 “이런 영적 존재로 인해 일본 사회는 집단적 사료잡힘 증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월터 윙크는 ‘억압의 권세’라고 표현되는 영적 존재가 인류를 향해 개인의 외적 사료잡힘(Outer Personal Possession), 개인의 내적 사료잡힘(Inner Personal Possession), 집단적 사료잡힘(Collective Possession) 등을 발생시키는데 민목사는 일본의 현 반응을 집단적 사료잡힘 증세라 봤다.

“현재 일본 정계의 정치적 우파들은 일본의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후손에게 객관적 실패를 돌아보도록 하기보다는 집단적 사료잡힘 증상을 보여준다. 전체 사회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국민들은 자신이 그것에 사로잡혔는지 깨닫거나 느끼지 못한다. 예수님의 죽음도 초인적 권세에 의해 집단적 사료잡힘을 당한 사람들이 보여준 악행의 실례”라고 설명했다.

민목사는 “역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살피려는 것은 모든 인류가 과거의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의 아픈 과거를 통해 인간성에 대한 반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주장신대는 오는 4월 7일 오후 7시 이상명 총장을 강사로 “성경, 생태, 생명신학” 주제아래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한다.

▲문의: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pts.edu, 213-703-9856

김준형 기자

교회 및 선교 교회

LA 지역

LA사랑의교회: 김기섭 담임목사,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LA 온하늘교회: 연제선 담임목사,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LA세계선교회: 장태원 담임목사,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갈릴리선교회: 한천영 담임목사,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 김 담임목사,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담임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나성동산교회: 한기형 담임목사,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나성서부교회: 서건오 담임목사,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나성열린문교회: 박한성 담임목사, 328 W. 6th St., LA, CA 90020

나성제일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남가주광염교회: 정우성 담임목사,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산타모니카교회: 김영구 담임목사,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써니사이드교회: 조인수 담임목사,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나눔장로교회 엔키아선교회: 김명수 담임목사, 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열매교회: 김요섭 담임목사,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올림픽장로교회: 류종길 담임목사,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요한 선교교회: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임마누엘선교회: 신승훈 담임목사,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주님의영광교회: 민중기 담임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청운교회: 이명수 담임목사,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충현선교회: 장지현 담임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한마음제자교회: 김부환 담임목사,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한우리장로교회: 김범수 치과,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김범수 치과: Bryan Kim D.M.D.,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대표 주해목사,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진주전문회사 고베펄사 창립 12주년 기념

고베펄 진주보석소
신제품과 와인파티까지?
펄리우드쇼로 가자!~

펄리우드 빅쇼

BIG SHOW

PEARL LLYWOOD

前無後無 天무후무 진주보석 퍼레이드 고베펄 신제품 1만여점 총출동!!

고베펄제품은 레이저공법과 수제품으로 서울 강남고베펄공장에서 세공됩니다. 앞서가는 디자인 정교하고 세련된 세공으로 미국 전지역에서 모든 한인여성들 에게 인정 받는 고베펄제품 2016년 신제품을 이번 행사에서 만나보세요.

여성의 우아함을 돋보이게하는
진주 비드 제품 전품목 최대 80%세일

경제적인 가격대 진주 제품부터 최고급 아코야진주까지 일본공법 한국세공 고베펄 진주비드제품을 만나보세요.

2016 명품
아코야진주
전시판매

부부금실
돈재수
홍산호

서울 강남세공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유색보석 2016신제품 세트 전시판매



한국세공 진주 3종세트
신상품 대거 출시
서울 강남세공 레이저공법



홍산호 신제품 대거 전시
부부금실 금전운을 향상 시켜주는
비드목걸이 / 3종세트 / 반지

진주보석+와인=대박 파티!!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 행사장에서
무료 와인 시음과 선착순으로 200분께
와인 1병을 증정합니다!

와인 한병
200분께
무료증정!

고베펄 와인 행사는 4월 5일 - 4월 6일
오후 3시-6시까지 진행됩니다.

엘에이 행사일정 (1) 와인파티 3시부터 6시까지
일시: 2016년 4월 5일(화)-6일(수), 2일간
장소: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 2층 대연회장
745 S Oxford Ave, LA, CA 90005 (8가와 옥스포드)

엘에이 행사일정 (2) 중앙일보행사에서는 와인파티를 하지 않습니다.
일시: 2016년 4월 7일(목)-10일(일), 4일간
장소: 중앙일보 교육문화센터(지하 1층)
주소: 690 Wilshire Pl, LA CA 90005

전자보청기
\$300 상세한 정보 보내드립니다.
 JongKim6702@gmail.com
T: (213)270-5268 김중명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미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 (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금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원형배너 스탠드포함 \$65 (일시유급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장외), 제작, 연속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을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항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척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픏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녀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천연항산화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편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질(항문하혈, 통증) •우울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관절염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원형탈모
 •불임증 (자궁축, 하혈) •만성두통, 요통
 •TMJ 턱관절 장애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서울메디칼 그룹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6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0% APR & No Payments For 90 Day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301 East 23rd St. Carson 9074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한수희 칼럼(2) 빛을 잃은 보석

부적절한 자존감의 문제들

우리는 주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듯 하나, 삶의 모습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한다.

그런 경우 그들 안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기인할 때가 많다.

낮은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정적 감정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여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가지 갈등 상황을 몇가지 요인으로 국한하기는 어렵지만, 낮은 자존감의 문제들은 중요하고도 심각한 만큼 삶의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

자존감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낮은 자존감의 문제들을 제일 먼저 다루는 이유는 자존감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낮은 자존감의 문제점을 '인정하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 스스로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되어 있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깊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이 일으키는 부적절한 문

제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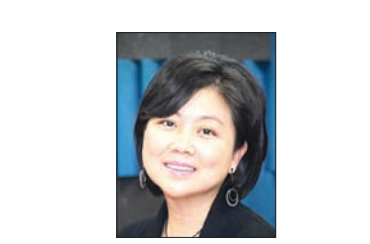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치감과 자기효능감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확인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강한 인정욕구를 갖게 된다. 다음에 열거한 문제들이 인정욕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길 바란다.

낮은 자존감은 비평에 대해 '과민성'을 갖게 한다. 이것은 건설적인 말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가리키며, 교정이나 격려 또는 제안을 자신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것으로 듣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대한 반응은 자주 마음에 상처를 입고 분노를 터뜨리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한다. 즉 위협한 듣기의 형태인 '방어적 듣기'를 하는 것이다. 말을 한 사람은 공격한 적이 없는데, 듣는 사람이 방어적 듣기를 함으로서 말한 사람을 공격자로 만드는 경우이다.

조직의 리더가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경우,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는다느니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또 다른



한수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문제는 '흑평성'이다. 흑평성은 '과민성'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 같은 방어적 자세는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연약한 견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비판받는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것이 아님에도 비판과 흑평을 일삼는다. 그러나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부분이라 자신의 내면적 동기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당혹감' 또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다. 위에 열거한 '과민성'과 '흑평성'이 두려움으로 인한 공격적 방어 형태라면, '당혹감'은 수치감과 죄책감을 동반하는 고조된 자기의식이다. 이런 경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가 부적절한 상황에서 자주 튀어나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부적절함'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의 열매이다. 그러나 잘못 말하고 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사과하며 찢찢대는 경우는 당혹감이 드러나는 부적절한 경우일 것이다.

'거만'은 자신감으로 잘못 불릴 수 있는 낮은 자존감의 또 다른 형태다. 그러나 보통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만 속에는 평범하고 일반적이며 평균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인간의 공통적 경향인 '책임전가'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책임전가'는 자기 비난을 처리하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매사에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그 속에 자신을 숨기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그리도 꾸짖으셨던 '외식'은 낮은 자존감의 가장 드러나지 않는 고도의 표현이다.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을 포장하고 거짓 가면을 쓰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외식은 가깝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멸시의 가장 슬픈 형태일 것이다.

종합해 보면 낮은 자존감은 자기를 과장하고 왜곡하며, 자기 기만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존감의 주요 요소인 자기 사랑, 즉 자신을 돌보 고보호하는 능력을 통해 상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타인을 수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으면, 나를 내어주고 상대를 초청해 만날 수 있는 그 따뜻하고중요한 지점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어가는 그 곳을 향하여 지금도 '공사중'인 사람들이다. 내 마음속에 '공사중' 뜻말을 꿰고 하나 남께서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귀한 보석을 잘 닦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보충하고 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기대하며 기도한다.

●교회 부동산 칼럼(1)

교회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달라야 한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다. 특별히 불경기가 닥치게 되면 그 경제적인 영향이 교회들에게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교인들의 헌금만으로 교회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

교회들의 재정적 곤란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많은 경우의 재정난은 모임과 사역 장소, 즉 Property 유지를 위한 비용에서 기인한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실제적인 필요보다 지나치게 큰 장소때문에 오는 재정적인 압박이다. 둘째는 교회 건물과 공간을 바르게 사용 못하고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들은 주일외 대부분

의 시간, 건물과 공간을 비워두고 있는 실정이다. 주일예배와 모든 프로그램들을 마친 후 일주일 동안 교회는 극히 일부분의 공간만을 사용하고 있다.

세상적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용도와 투자가치이다. 하지만 교회 부동산에 대한개념은 달라야 한다.

교회 자산에 대한 목적은 경제적인 이윤에 있지않다. 교회 자산에 대한 목적은 물질적 자산을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교회의 사명성취를 위한 사역을 활성화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 부동산을 투자적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대신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다.



Mark Kim 대표
Max Capital Group, Inc

건물은 건물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임과 사역을 위한 장소로서 건물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건물을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건물 사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사역의 극대화를 성취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가장 첫단계로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사용에 대한 올바른 평가이다.

제일 먼저 요일과 시간 별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정리한다. 사용하는 시간보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면 심각한 낭비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 해야 할 일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교회 사명과 관련된 사역을 위한 사용(Mission-Oriented Uses)을 계획하고, 이차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용(Community Uses)을 계획하고, 삼차적으로 교회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용(Purely Financial Uses)을 계획한다.

세 번째 단계는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아무리 올바른 평가와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이 없기 때문이다.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교회 사명과 관련된 사역을 위한 사용(Mission-Oriented Uses)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고,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용(Community Uses), 그리고 교회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용(Purely Financial Uses)의 순서로 실천에 옮겨 보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자산을 청지기의 자세로 잘 관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할지어다"하는 칭찬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909-643-3994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봄학기 학생모집

봄학기

2016년 3월 21일(월)~5월 28일(토) 수업
(봄학기 등록마감 3월 21일까지)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연세의료원 원목실 편저 | 동연 | 312쪽

2016년판 '육기'. 불가사의한 치료로 생명을 살린 드라마도 있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도 은총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믿을 수 없는 아픔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신의 뜻과 섭리를 찾아가는 환자 가족들의 이야기도 있다. 진정한 기적은 극적인 소생뿐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갈 길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에까지 이르는 데 있음을 웅변한다.



바울이 세상에게

권호 | 생명의말씀사 | 192쪽

현실에 약한 우리를 일깨우는 바울의 10가지 질문과 그 대답. 묵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움켜쥐기 위해 연연하는 우리에게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살고 싶지만 한계와 상처에 갇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들려 준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맹목적 질주를 멈추고 진지하게 답을 찾으라. 바울은 가까이 대답해 줄 것이다.



예수 옷자락을 잡다

김집 | 책만드는토우 | 3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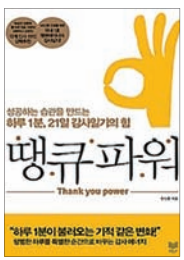
저자는 자신의 책을 '신약 역사소설' 또는 '신약 실명소설'이라 부른다. 상상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이적들을 해석한다. 저자는 무교회주의에 기웃거리거나 예수원에 머무는 등, 성경공부를 하면서 생긴 술한 의문에 대해 교회 밖에서 답을 찾고자 했지만, 세월이 흐른 뒤 모든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깨닫는다. 특히 '병이 나왔다'는 신약 속 기술들에서 '구원'이라는 옷자락을 붙잡는다.



땡큐파워

민진홍 | 라온북 | 240쪽

'긍정의 힘'을 넘어선 '감사의 힘'을 설파한다. '성공하는 습관을 만드는 하루 1분, 21일 감사일기'를 제안한다. 흡수저, 헬조선, N포세대 등 현실 비판적 시선과 언어들 속에서, '대한민국 1호 땡큐테이너'라는 저자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말한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은 물론이고 취업, 승진, 인간관계 개선 등에도 특효약이라는 것.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위대한 영화감독의 구도의 삶과 영화예술론

이 책은 영화 '향수', '희생' 등의 걸작을 남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1932-1986) 감독의 일기이다. 한 영화 평론가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를 가리켜 '영화감독이 존경하는 감독'이라고 말했다. 잉그마르 베르그만 감독은 그를 '20세기 최고의 영화 감독'이라고 극찬했다. 그의 영화는 여러 해 전 서울에서 상영되기도 했는데, 많은 관객이 몰려 매진 사태가 벌어졌다. '한 위대한 영화감독의 구도의 삶과 영화예술론'이라는 책의 부제가 보여 주듯이, 그는 스스로 순교자로 자처할 정도로 독실한 신앙을 지녔었다. 1970년 9월 5일자 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인간이 도달

할 수 있는 한계 밖에 있는 무한한 법칙 또는 무한성의 법칙에 근거해볼 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의 다른 저서 '봉인된 시간'에 예술과 영화에 관한 그의 생각을 교과서적으로 보여준다면, 이 일기는 일상의 꾸밈없는 기록과 더불어 그의 고뇌와 내면세계의 예술적 열망을 투명하게 나타낸다. 그의 글이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다가가는 이유도 아마 솔직하고 따뜻한 그의 인간성이 곳곳에 배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위대한 '영상시인'이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잉그마르 베르그만은 그를 가리켜 "영화라는 매체에 적합한 고유의 영상언어를 창조해낸



타르코프스키의 순교 일기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두레 | 408쪽

가장 위대한 영화감독'이라고 했다. 타르코프스키는 1981년 11월 12일 일기에서 "예술이란 낮은 차원에 있는 인간이 더 높은 차원에 도달하려

는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생기는 극적인 갈등이 예술과 예술적 형식의 내용이라고 했다. 타르코프스키는 독서광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책을 사랑했다. 그의 일기를 보면 그가 평소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한 때 도스토예프스키에 몰두하기도 했다. 1970년 4월 30일자 일기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이제 나는 우선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이 쓴 글들을 모조리 읽어야만 하겠다. 그리고 그에 관해 쓴 모든 글들, 그리고 러시아 종교철학자들인 솔로요프 베르자예프 레온체프의 글들도 모두 읽어야겠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내가 영화 속에서 실현시키

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의 총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기의 다른 부분에서 그는 헤르만 헤세에 빠져 있다. 또 토마스 만의 작품 '베니스의 죽음'을 읽고 "천재적인 작가요 놀랄 만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일기 중에는 특히 독서 후 적은 발췌문과 감상이 다수 발견되는데, 이는 그의 독서량을 증명해 주고 있다. 타르코프스키는 스스로 그의 일기에 '순교자의 일기'(Martyrolog)라고 이름 붙였다. 이것은 그가 아마도 순교자처럼 매일 순교하면서 숭고하고 거룩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송광택 목사

충부활

사/명/선/언

복음을 신실하게 믿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불신자를 불러 양육하는 예배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

"예수를 본받는 교회, 믿는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 불려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충현선교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교육부 오전 11:30
-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choonghyun.org

충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인랜드 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45
-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inlandchurch.org

“거듭남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묵상하기”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며 부활절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주제인 ‘십자가’ 관련 최근 도서 읽기

◆ 거듭남과 십자가



거듭남과 십자가
박순웅
생명의말씀사 | 280쪽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과 십자가 복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저자는 말한

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듭남과 십자가’가 사라져 가고 있다. 대신 변영과 심리 치유, 다양한 체험 등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그것을 ‘진짜 기독교’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호주 한인교회에서부터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그 두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진정한 거듭남’이란 “이전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거기에 새롭게 짓는 것”이라며 “다시 태어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전의 본성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그렇게 거듭난 자는 새로운 삶의 원리와 성향으로,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만을 향해 살게 된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 온 세월이 얼마나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거듭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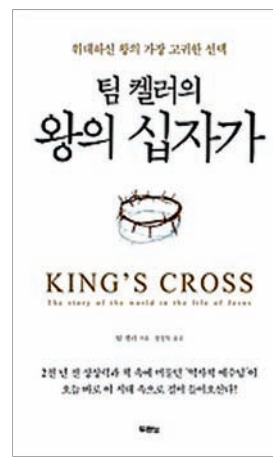
‘십자가’에 관해선 “주님은 십자가

에서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십자가 상에서 주님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죄 때문인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형벌을 면하게 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한다.

이 ‘새로운 것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든 알고 소유해야 할 기독교의 중심이자 기본’인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저자는 별도로 전했던 설교들 중 몇 편을 뽑아 압축해 책으로 구성했다.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 모임(참·교·추)’의 계속된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는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
팀 켈러
두란노 | 336쪽

‘21세기의 C. S. 루이스’라 불리는 저자는 이 책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왕’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결국 ‘십자가’를 지셨다는 ‘아이러니’를 강조하고 있다.

시작부터 ‘해리포터’ 시리즈의 기차역 이름 ‘킹스 크로스(King’s Cross)’ 등 이 시대에 꼭 맞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왕’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1부에서는 ‘예수, 가장 위대한 신왕’을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실존하셨는지와 왜 왕이신지 등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다.

십자가 설명의 2부 제목은 ‘가장 고귀한 선택’이다.

저자는 예수님의 ‘변화산 체험’은 영광의 죽음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으로, ‘부자 청년’과의 대화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전부를 내어 주신 당신께서 진정한 ‘부자 청년’이심을, ‘성전 정화’ 사건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민에게 여신 것으로, ‘마지막 만찬’은 당신과 함께할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각각 설명하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 마지막에는 대역전을 소망하게 하는 ‘부활’이 있다.

저자는 “복음은 패배에서 나오는 승리, 약함에서 나오는 강함, 죽음에서 나오는 생명, 버림에서 나오는 구원을 보여 주는 궁극의 이야기”라며 “그분이 당신을 되찾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어둠을 감내하신 덕분에, 언젠가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짜 모습을 되찾고 그분의 영원한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 루터의 십자가 신학



루터의 십자가 신학
알리스터 맥그래스
컨콜디아사 | 359쪽

종교개혁자 루터를 대표하는 ‘십자가 신학’이 형성된 사상적 배경을 살피고 있다.

저자는 톰 라이트와 함께 ‘다작의

아이콘’이면서 기독교 변증가나 C. S. 루이스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칭의론’과 ‘종교개혁’ 관련 저술도 여러 권 집필했다.

이 책은 특히 저자의 첫 저서이며, 기독교한국루터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루터총서’ 중 한 권으로서 작년 말 컨콜디아사에서 발간됐다.

저자는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대해 “하나님에 관한 추상적 교리가 아니라, 겸손과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창조하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본을 따라 만든 그리스도교적 삶에 대한 실천신학”이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교적 삶을 이끌어 가는 ‘규범적 중심 두기(normative centering)’를 수반하는 그리스도교적 삶을 구상하고 형성하는 방법이요, 근본적으로 반(反)사변적·반(反)이론적 방법”이라고 총평한다.

특히 1509년부터 1519년까지 루

터가 ‘의롭게 됨’이라는 가르침에 접근하는 견해 변화, 즉 ‘루터의 신학적 돌파(breakthrough)’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한다.

저자는 루터를 “중세 후기 대표적 신학자에서 새로운 종교개혁 신학의 선구자가 된 사람”이라며 “그의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고, 그것이 내재적으로 가진 매력은 그것을 구성하는 복잡성보다 훨씬 더 크다”고 소개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루터의 ‘신학적 돌파’는 일련의 분리되고 단편적인 삽화적 사건들이라기보다 연속적 과정이었고, 그 발전의 한 측면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의 발견은 이 과정 전반에 걸쳐 본질적으로 중요했다.

저자는 이를 증언하기 위해 루터에게 영향을 미친 어거스틴과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인문주의, 루터의 시편 강해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 부활절 메시지



부활절 메시지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R&R | 336쪽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 (James Montgomery Boice)가 30년 이상 재직된 미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에서 14년간(1969-1982)

선포한 부활절 설교 16편을 ‘도래하는 새날’, ‘첫 번째 주일’, ‘그분이 살아나셨다’, ‘우리의 새날’ 등 4부로 나눠 엮었다. 원제는 ‘The Christ of the Empty To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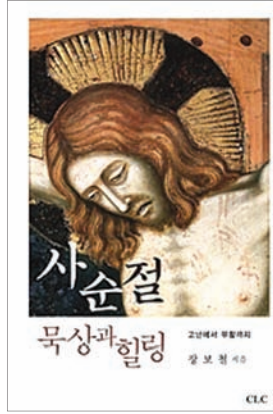
저자는 이를 엮으면서 두 가지에 새삼 놀랐다고 한다. 첫째는 당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이들이 부활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후 완전한 확신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다음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성경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생에서 죄에 대해 초자연적 승리를 누릴 수 있다. 우리도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 사순절 묵상과 힐링

목회신학과 목회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저자는 사순절 기간 크리스천들이 꼭 묵상해야 하는 주제들을 선정한 후, 묵회 돌봄과 상담학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풀어냈다.

‘힐링에 초점을 맞춘 실천신학적 사순절 묵상집’으로서, 40일간 성화(聖畫) 감상과 본문 읽기, 묵상하기, 묵상 포인트 나누기, 나의 내면 살피기, 기도 적기, 힐링을 위한 포인트 등으로 이어진다.

‘고난에서 부활까지’ 이어지는 묵상을 통해 저자는 “그리스도의 고난



사순절 묵상과 힐링
장보철
CLC | 256쪽

과 부활은 아주 오래 전 일이지만, 바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살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사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토록 미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며 믿고 고백하며 인정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사순절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 고단한 삶의 현장에, 예배드리는데 그 자리에 살아 움직인다는 역동성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실천적 사색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복음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매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축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한인 소망 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2: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분(월~금)

윤 목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CA 90274
T. (310)-715-9902

축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얼바인 온누리 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Celebrating Easter, and Planting a Passion for the Gospel in the Hearts of Children

BY RACHAEL LEE

Though students are out on spring break, the campus of Los Angeles High School has been anything but quiet. Noises of children shouting and singing worship songs filled the LA High campus this week, as some 380 children participated in New Life Vision Church (NLVC)'s sixth annual Celebration for Easter at the school, where NLVC also holds its Sunday services.

Celebration for Easter, or CE as they call it, is NLVC's annual outreach event for the children, and is basically the church's Vacation Bible School (VBS) but held in the springtime near Easter. Not only is it a way for the children to celebrate Easter, explained Pastor Jeehae Yang of the children's ministry at NLVC, but it's also a way through which the church hopes to plant in the children an urgency to share the gospel to their friends from a young age. Starting four to five weeks before CE, children at NLVC are encouraged by the children's ministry staff to think of friends at other churches and particularly friends who have never gone to church before. Together, the staff help the children to pray for those friends and think of ways they can invite them to CE.

"Ever since Pastor Sharon Suk started the CE program, she had this desire to plant a passion for the gospel in the children from a young age," Yang said. Suk is the director of NLVC's children's ministry.

This year's CE, which was titled 'Altitude' and used hiking themes to convey gospel-related messages, focused on three lessons over the course of three evenings. The first night was centered on the lesson, "I need Jesus," and included a gospel presentation during the worship service. The second day



About 380 children attended New Life Vision Church's Celebration for Easter from March 21 to 23.

was focused on the lesson, "As a follower of Christ, I will stand up for what is right," while the third day was focused on the lesson, "As a follower of Christ, I will do what is right no matter what."

All of these lessons were conveyed through two main parts: a main worship service with music and dancing, a sermon, and prayer time; and then a rotation of three different activities including games, Bible stories / study, and arts and crafts.

A separate room was made available for parents and their infants or toddlers, where the families participated in activities together to impart these lessons unto their smaller children. And another room was prepared and filled with members of the church who came by to pray and intercede for the children during CE.

"As the most amount of children tend to show up on the first day, we wanted to share the gospel on the first day so that as many children as possible can hear it," Yang

explained of the lessons throughout the event. "Then, after they have heard the gospel and hopefully committed to accept and follow Jesus, we wanted to help them discern what is right and wrong from a young age, and to be able to live that out as they grow older. As they become teenagers and college students, it'll become harder to stand up for their faith. But our hope is that even when it is hard, even when their peers may mock them for what they believe, that they would choose to defend their faith until the end."

After the gospel presentation during the first night, the children were invited to raise their hands during the first night if they have never accepted Jesus before and would like to after having heard the good news. Those who raised their hands were noted by the small group leaders, who provided additional care throughout the course of CE and answer any questions the children may have. The small group leaders would

also let the other staff know of who raised their hands. If the children who raised their hands did not already go to another church, and CE was his or her first time at a church event (information which was noted in each child's CE application form), the NLVC staff would contact the child after CE was finished to invite him or her to church. Many of the children who currently attend NLVC were connected through CE, Yang said.

"Those children's names are kept in mind by the staff, and we pray expectantly for each child, and we follow up with them and contact them," she shared.

Meanwhile, NLVC has another outreach event for children in the fall called 'Buddy Party,' which is a one-day event that takes place on a Saturday. The church also has a mission trip opportunity for children each summer. On average, some 30 children participate each year, and they have traveled to places such as Mexico, South Korea, and Arizona.

A Conference to Equip Youth with a Christian Worldview

BY RACHAEL LEE

As Christian youth try to navigate in today's world, they may find themselves faced with numerous obstacles, including skepticism about their faith from their peers, and conflicting views from the surrounding society and culture. Equipping youth with an understanding of a Christian worldview to be able to defend and maintain their faith in the midst of those obstacles is one of the main purposes behind the upcoming Truth Matters Conference hosted by Church Everyday.

The conference was initially exclusive to youth students at Church Everyday, but when the staff found that youth students of other churches also showed a desire to learn, they decided to expand and open up the conference to allow students from other churches to join starting the second conference.

Last year's conference was focused on helping youth to engage in apologetic conversations with their peers.

This year -- the third time the conference is taking place -- the conference will focus on helping them understand the Christian worldview.

"A lot of our students may know theology, doctrine, and even apologetics, but many aren't sure how it applies to their everyday lives, or how the Bible is applicable in today's cultural landscape," explained Kevin Yi, the youth pastor at Church Everyday, in a statement on Facebook.

"Teaching our young students to think consistently and in accordance with God's Word is essential for developing a faith that lasts through the college/university experience."

"We all know of students who have abandoned the faith after high school, and this conference is designed to help both parents and young students recognize the traps of our culture and how to think clearly through today's pressing cultural issues so that they're better equipped to handle what comes in the future," Yi said.

The conference will start off with a session with Michael Sherard, the director of Ratio Christi College Prep, who will be speaking about relational apologetics.

The second day is packed with sessions on what a worldview is; keeping the faith in college; homosexuality and Christianity; and being an influence in culture. Discussion groups and times for questions and answers are also included throughout the conference.

Several of the sessions will be led by Caleb Kaltenbach, the lead pastor of Discovery Church, and one who was raised in the LGBT community. Greg Koukl, founder of the apologetics organization Stand To Reason, will be speaking in three sessions on Sunday, which is an optional portion of the conference.

"By focusing on worldview, we can begin to address many of the things that concern us in our culture," Yi explained. "As we turn together specifically towards the beauty and richness of the Christian worldview, we can begin to develop culture making and leadership skills to redeem and restore the broken things in our culture."

'The Unresolved Issue of Comfort Women... Restorative Justice Must Be Brought About'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What would a Christian's perspective look like regarding the issue of the Japanese Army's 'comfort women'? How could the long-lasting and historical pain that resulted from their abuse be resolved?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hosted a forum regarding the issue called, "Christian Social Justice and the Japanese Army's Comfort Women Issue" on March 17.

Reverend Jeong Kii Min, the senior pastor of Choong Hyun Mission Church who also has a PhD in Christian Ethics, was the presenter on this topic. He started by defining this issue as a "collective sin," and approached the issue from a social justice standpoint, as well as a spiritual standpoint.

First, Min asserted that as much as the sin was a 'collective' one committed by a people group, repentance must happen collectively as well.

"Christianity emphasizes personal repentance and individual spiritual maturity, but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in collective sins embedded in societal structures," Min said. "Liberation theologians brought attention to the idea that personal repentance does not resolve a collective evil. Personal repentance must be the launching pad by which the fruit of collective repentance is brought about."

From this standpoint, the comfort women issue began with individuals, but progressed into a systemic sexual crime and collective evil led by the government. Hence,



Leaders of Korean churches visited the peace monument in Glendale that was established in honor of the 'comfort women' victims from World War II.

for this issue to be resolved and for justice to be realized, a collective and official apology and compensation is necessary.

According to Min, compensation must take place in multiple forms and embedded in multiple layers. The individual who suffered mental and physical damages must receive compensation from the perpetrators of the crime. And the entire process of discussing matters of compensation, or carrying out justice, must be done with the intention of comforting and healing the victims. On the governmental level, the two governments must continue their efforts to maintain peace and restoration.

"Today's Japanese government has deleted, distorted, deceived others of, and shifted its responsibility of the war crimes it has committed," Min said critically. "It no longer wants this issue to be a sub-

ject of discussion and is working to forget it happened."

However, such an approach is bringing about a "negative influence to the peace and reconciliation with [Japan's] surrounding nations," Min said, and "teaches us that bear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past includes admitting the wrong and having a change of heart and actions, as well as reconciling with surrounding nations and restoring amicable relations with them."

Min also discussed the spiritual aspects of this issue, apart from the social justice aspects. He argued that the government's continued efforts to gloss over and conceal this issue is a tactic being employed by spiritual forces. "Satan himself masquerades as an angel of light" (2 Cor. 11:14), Min quoted, and said that Japan's attempt to gloss over the issue, such

as by calling the victimized women 'comfort women,' is a symptom or evidence of its captivity to evil spiritual forces.

"Currently, the political right-wing of Japan is not sincerely reflecting on the wrongs that the country has committed, nor is it encouraging its younger generation to reflect objectively on its past failures. Rather, it shows symptoms of a collective captivity. When an entire society is held captive by a certain ideology, they themselves are unaware of that fact," Min explained. "Even the death of Jesus was an act of evil that was carried out by a people who were held captive under a supernatural power."

Min also suggested practical ways that churches could help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by sharing experiences from his own church.

Choong Hyun Mission Church held a musical concert in 2014 in commemoration of the first anniversary since the Glendale peace monument was established in honor of the victims of sex slavery.

Around that time, Min also preached for three weeks regarding social justice to create a mutual understanding with the congregation.

Among the younger ministries, resources about social justice were disseminated and families were encouraged to visit the monument together.

"Revealing, exposing, and examining history, rather than hiding it, is a part of humanity's effort to avoid repeating the same mistakes," Min said.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More than 30 Dead, Hundreds Injured in the Wake of ISIS Attacks in Brussels

Three explosions rocked Brussels on Tuesday, killing at least 30 people and injuring over 200, according to the latest media reports. ISIS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s, according to a website affiliated with the militant group.

Two bombs exploded at the Brussels Zaventem airport at 8:00 am local time (07:00 GMT) near the excess baggage counter and near Starbucks café in the departure hall, killing 14 people and injuring 92.

The third bomb went off at a train that had stopped at Maelbeek subway station at about 9:10 am, and killed 20 people and wounded another 106.

Prime Minister Charles Michel condemned the attacks as “blind, violent and cowardly”, adding that this was a “tragic moment in our country’s history. I would like to call on everyone to show calmness and solidarity.”

The first two bombs at the airport

went off within 15 seconds of one another, with a distance of 20 meters between them. Eyewitness accounts say that the explosions brought down the ceiling of an airport wing, shattered glass windows, and ruptured pipes.

The third explosion of the Maelbeek subway station was not very far from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headquarters of the European Union.

The injured at the station were taken to a local pub, which served as a makeshift treatment center.

The Belga news agency reported that some shouts in Arabic were heard before the bombs exploded, and that there were sounds of firing. Another local news channel RTBF said that a Kalashnikov rifle was discovered at the departure hall at the airport.

The attacks come four days after Salah Abdeslam, the prime suspect in the Paris attacks, was arrested in Brussels. He is the lone survivor of the 10

militants who were at the forefront of carrying out the attacks which killed 130 people.

Evangelical voices spoke out soon after news of the incident broke.

“Praying for the people of Brussels today after brutal terror attack. May God preserve life,” said Albert Mohler, president of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Our prayers are with Brussels, Belgium today after news of deadly terrorist attacks,” the 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said. “Please pray for the first responders, those wounded and those who lost loved ones, as well as for justice to be served.”

“Our thoughts & prayers are with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in Brussels,” stated the Family Research Council. They added a verse, saying,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John 16:33 #PrayforPeace.”

United Methodist Church Leaders Call for \$12 Million Budget Cut

United Methodist Church leaders have recommended a cut of \$12 million from the recent budget proposed in February for the next four years, which puts its expenditures at the lowest level in 16 years, according to a UMC press release.

The executives of the church met together in Nashville and suggested reducing the February budget for 2017-2020 from \$611 million to \$599 million, which is lower than the \$603.1 million budget approved for 2013-2016.

The budget cut came as the leadership considered “the ministries, challenges, and careful stewardship of congregations and annual conferences, along with global economic uncertainty and trends in church attendance in the United States,” the General Secretaries Table of the UMC said in a statement.

The proposed budget formula would “roll back the general church appointments to the lowest percentage since the current apportionment formula was introduced in 2001,” the statement says.

“A reduction to \$599 million will impose hardships and require reworking ministry plans,” the statement continues.

“But with appreciation for the creative strategies undertaken by annual conferences and congregations, and in accord with church-wide efforts to reach and serve more people in more places, [the general secretaries] agreed that reducing the base rate percentage used to determine annual conference apportionments is timely and appropriate.”

The church’s General Council on



(Photo: Glowmark/Wikimedia/CC) The UMC’s West Michigan Conference in 2012.

Finance and Administration (UMCGCFA) and the Connectional Table will vote for the budget cuts in early April, and a final decision will be taken by May.

The budget set aside the expenditures on UMC’s education funds and affiliated universities and support of the clergy of the church. The largest portions of the budget are reserved for the church’s general agencies including media and news service.

The leaders of the church hope to support the struggling churches in the new budget.

“As local churches and annual conferences continue to cut budgets or hold them flat, we believe that all of the general funds must adjust as we stand in solidarity with United Methodists across the connection,” Gilbert Hanke, convener of the General Secretaries Table said in a statement.

Erin Hawkins, General Secretary of UMC General 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 said: “We are one body, and the strength and health of every part of the church is vitally important for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Leaders in every part of the body should be proactive and mindful of each other. Today’s action demonstrates our commitment to attend to the whole of our mission as we bear witness locally and globally,” she said.

General secretary and treasurer at UMCGCFA, Moses Kumar, told the Christian Post that “all organizations receiving general Church funds will be impacted by these reductions equally.”

“The ultimate decision on the general Church budget for the next four years will be determined by the delegates of the General Conference held in Portland, Oregon, in May,” he said.

Women Must Know the Risks of Abortion, According to New South Dakota Law

Doctors required to inform female patients that abortion will ‘terminate the life of a whole, unique, living human being’

South Dakota Governor Dennis Daugaard signed a bill making it mandatory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abortions to women who have decided to undergo this procedure.

The bill, HB 1157, was made into a law last week, which will “require that a doctor provide a woman additional information as a part of informed consent prior to performing a first trimester abortion.”

The legislation requires that the consent a woman gives to abort a baby must be based on complete information regarding the scientifically known facts about the baby at the given gestational stage and prognosis of the procedure on women’s health, as well as the options available to reverse the abortions if the woman so decides.

The law requires the woman to be told by the doctor that “the abortion will terminate the life of a whole, separate, unique, living human being,” along with being provided with a “scientifically accurate statement describing the development of the unborn child.”

This information needs to be provided by the abortionist to the woman two hours before the scheduled procedure, according to the bill.

Then the hospital should tell the

woman of the medical risks accompanying abortion, such as “infection, hemorrhage, danger to subsequent pregnancies, and infertility,” along with increased susceptibility to depression, suicidal tendencies, and anxiety disorders.

Also, the law states that the abortionist must inform the woman of a chemical abortion reversal pill, in case she wants to go back on her decision.

Brock Greenfield, Senator (R-District 2, SD) explained, “Should the female decide that she has regrets relative to her decision, we are just asking that it be very clear [to her] that there is still a very real chance of a viable pregnancy and birth should she continue the process.”

A chemical abortion reversal protocol was developed by Dr. Matthew Harrison, when he found out that a child could be saved if progesterone is given as a supplement at the right time.

The chemical abortion requires two pills to be taken in a gap of 2 days. But, if the reversal kit is administered in the first 3 days of taking the first pill, the

chemical abortion can be reversed.

This kit has saved about 100 babies up until now, reports say.

“This legislation begins a new chapter in the history of South Dakota to protect unborn babies in our state,” said Rep. Fred Deutsch.

About two weeks ago, South Dakota passed a legislation to ban abortions after 20 weeks, as babies become capable to feel pain at this gestational age according to several medical studies.

Doctors who attempt to perform abortions on fetuses over 20-weeks, except in emergency situations, will be liable to pay \$2,000 fine or up to one year in jail, or both.



South Dakota Governor Dennis Daugaard. (Photo: Otis1000/Wikimedia/CC)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새 봄 맞이 SALE

HYUNDAI
SEIZE THE MOMENT
 SALES EVENT

NEW
2016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3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5 HYUNDAI
SONATA LIMITED
 With Ultimate
 Technology Pkg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32,730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Panoramic Sunroof, Navigation System W. 8" Touch Screen
 Integrated Memory System For Driver Seat & Side Mirror & More!!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500 Lease Loyalty Cash,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Demo)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 +Tax

3 In Stock With
MSRP \$62,450

Stock # Gu106201 / Gu104147 / Gu101688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8,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5 HYUNDAI
GENESIS SEDAN 5.0L V8 Engine

Lease It For **\$299** +Tax

All In Stock With
MSRP \$52,7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4,25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